

전문도서관 운영평가의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연구*

- 2012년도 운영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Results of Korean Special Library Management Evaluation Conducted in the Year 2012

한 종 업 (Jong yup HAN)**

차 성 종 (Sung-Jong CHA)***

목 차

- | | |
|--------------|---------|
| 1. 서 론 | 4. 종합평가 |
| 2. 연구배경 및 개요 | 5. 결 론 |
| 3. 평가 영역별 분석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전문도서관의 2011년 한 해 동안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여 전문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39개 세부지표의 종합 평가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볼 때 51.8점으로 나타났다. 5개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시설환경 영역의 100점 환산점수가 77.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적자원 영역(53.5점), 도서관 경영 영역(51.0점)으로 나타났다. 정보자원과 정보서비스 영역은 각각 49.3점, 45.4점으로 50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표는 시설환경 영역의 '이용자 편의시설'(96.7점)이었고, 가장 낮은 지표는 인적자원 영역의 '도서관 직원의 장기 교육훈련 참여실적'(13.0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12년 전국의 전문도서관 운영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설립주체별로 도서관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것이다. 국내 전문도서관은 주로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병원, 언론기관 등 모기관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분석결과는 향후 전문도서관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ave the development of special libraries in Korea and produce policy alternatives and current implications as well as to analyze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Korea special libraries in 2011. The evaluation of 39 detailed index scored at 51.8 out of 100. There were five evaluation territory. Among them, the facility environment's score was the highest as 77.3 and manpower was 53.5, library management were 51.0. The information resource and service territory were analyzed under 50 as scored 49.3 and 45.4. Closely look at the detailed index, the highest index was 'user amenity' (96.7) from facility environment and the lowest index was 'participation record of the long-term educational training of library staff' (13.0). This study diagnosed current management of libraries and problem as well as to analyze the result of administration evaluations of special libraries in nation throughout 2012. The institution type of special libraries in Korea is very varied such as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local government, and education office in local-affiliated institute, business, private organization, hospital, the press and so on; therefore, the analysis result can be utilize for basic information to provide future special libraries type in order to make differentiated policy making.

키워드: 전문도서관, 도서관 평가, 도서관 경영, 도서관 서비스

Special Library, Library Evaluation, Library Management, Library Service

* 본 연구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2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된 "2012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본 연구는 KIOST 연구사업(PO00060)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도서관장(jyhan@kiost.ac) (제1저자)

*** 송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조교수(sjcha@sewc.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3년 8월 12일 최초심사일자: 2013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8월 1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407-435, 2013.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3.407]

1. 서론

전문도서관은 대부분 모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모기관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모기관의 경영층과 이용자에게 인정받는 전문도서관은 기본조직으로서 크게 발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상조차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경제·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전문도서관에서는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고 기능과 규모 또한 위축되었다. 이와 같이 전문도서관은 다른 관중에 비하여 경쟁환경이 치열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등의 공적 지원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전문도서관이 모기관의 비전과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주요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 전문도서관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서관 운영의 질적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도서관 운영 평가는 도서관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수단이자, 도서관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또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인력과 자원의 배치,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이 연구는 2012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중 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운영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설립주체별로 도서관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것이다. 도서관 평가를 모기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전문도서관 유형별로 강점과 약점을 심도 있게 도출

하여 차별화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배경 및 개요

2.1 연구배경

지금까지 도서관 평가를 위한 연구는 대체로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도서관 평가와 관련된 연구 중 전문도서관 분야는 주로 평가지표 개발 연구와 이용자 연구로 양분하여 수행되어 왔으나 그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전문도서관 평가지표 개발 연구는 박희숙(2008)이 전문도서관과 관련하여 문헌연구, 운영실태 조사, 선행지표 분석을 통해 도서관 경영, 인적자원, 정보자원, 재화자원, 시설자원, 정보이용, 정보서비스, 정보공유, 도서관전문성 등 9개 영역의 70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김상준(2008)은 2007년에 개발된 전문도서관 평가지표를 인문, 사회, 과학기술 분야의 공립 전문도서관 평가에 적용 가능하도록 타당성, 실효성 검증과 모의평가를 통해 5개 영역의 18개 평가항목과 36개 평가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평가지표 개발 연구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위한 측정지표에 반영되었다.

전문도서관과 관련된 이용자 연구로는 전문도서관 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한 연구와 이용자 만족도 연구가 있다. 김윤실(2002)은 서브클ustering을 활용하여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의

기대와 지각수준을 분석하고 품질 영향요인을 도출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김정희(2009)는 도서관의 품질을 이용자 만족도 측면에서 진단하였는데 서비스 품질 차원 변수와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상관성, 상대적 영향력, 차별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개선 요인과 실질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이용자 연구는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성향에 기초하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최재황, 차성중(2012)은 이용자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0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699개 공공도서관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주요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문도서관과 관련하여 정량적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도서관 운영현황을 평가한 연구는 없다.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 운영 연구의 연장선에서 2012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중 평가에 참여한 전문도서관 63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운영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전문도서관은 모기관의 특성과 분야에 따라 그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므로, 도서관 설립주체별로 도서관 경영, 인력, 시설, 자원, 서비스 측면의 변인을 비교분석하여 전문도서관 운영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2.2 연구개요

2012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전문도서관 평가는 <표 1>과 같이 '도서관 경영, 인적자원, 시설환경, 정보자원, 정보서비스'의 5개 평가영역과 38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표는 도서관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중 전문도서관 평가를 위해 개발한 것으로 관련 법률¹⁾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5년간 시행해 오고 있다. 전문도서관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도서관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매년 공모제 방식으로 조사대상을 모집하여 평가하고 있다.

2012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전문도서관 평가는 총 63개관이 참여하였다. 전수 참여로 진행되는 공공도서관 평가와 달리 전문도서관 운영평가는 공모를 통해 수행하므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본의 대표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전문도서관의 특성 및 편차 등을 고려할 때, 모집단의 지역 및 설립주체별 비율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전문도서관은 주로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기업체, 언론기관의 도서관이나 정보자료실, 기술정보실 등과 같은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모기관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도서관 평가결과의 해석은 설립주체별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2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를 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아래와 같이 심층

1) 「도서관법」 제12조 제4항 제4호(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동법 시행령 제5조.

〈표 1〉 2012년 전문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평가영역(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도서관 경영 (15)	도서관 계획 및 평가	1.1 도서관 계획수립	3
		1.2 도서관 혁신활동 및 운영평가	3
	도서관 위상	1.3 소속기관 내 도서관 위상	3
	업무 표준화	1.4 업무편람의 최신성	2
	도서관 마케팅	1.5 도서관 홍보활동 실적	4
2. 인적자원 (15)	사서직원의 규모	2.1 사서직원 1인당 봉사대상자 수	4
	도서관 직원의 안정성과 전문성	2.2 도서관 직원 중 정규직원의 비율	2
		2.3 도서관 직원 중 사서직원의 비율	2
		2.4 도서관 직원 중 1급 정사서 직원의 비율	2
		2.5 도서관 직원 중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 및 복수학위 소지자 비율	2
		2.6 도서관 직원의 단기 교육훈련 참여율	2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2.7 도서관 직원의 장기 교육훈련 참여실적	1
3. 시설환경 (10)	도서관 면적	3.1 봉사대상자 1인당 도서관 면적	2
	이용자 시설	3.2 이용자 편의시설	3
	전산 환경	3.3 전산 시스템 운영환경	5
4. 정보자원 (25)	장서개발정책	4.1 장서개발정책의 성문화	4
	자료구입예산	4.2 봉사대상자 1인당 자료구입비	2
	자료수집	4.3 봉사대상자 1인당 인쇄자료 수	2
		4.4 봉사대상자 1인당 전자자료 수	2
		4.5 기본자료 확보 - 도서	2
		4.6 기본자료 확보 - 연속간행물	2
		4.7 기본자료 확보 - 기타 자료	2
		4.8 정보자원의 다양성	3
		4.9 소속기관 내부 특성화 자료	4
	DB 구축	4.10 자체 DB 구축 건 수	2
5. 정보서비스 (35)	도서관 이용	5.1 봉사대상자 1인당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횟수	2
		5.2 봉사대상자 1인당 전자원문 다운로드 건 수	2
		5.3 봉사대상자 1인당 인쇄자료 대출건 수	2
		5.4 도서관 이용자 수	2
	이용자 지원	5.5 참고정보 서비스	3
		5.6 주제전문 서비스	4
		5.7 이용자 교육	3
		5.8 정보자원 안내	3
	상호협력	5.9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참여	3
		5.10 원문복사 실적	2
		5.11 상호대차 실적	2
		5.12 외부 이용자 서비스	3
	서비스 개선	5.13 도서관 서비스 개선실적	4
※ 정성 평가		5	
합계 : 정성 평가 제외			100

적으로 확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평가영역별로 빈도분석과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여, 도서관의 일반적인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둘째, 모기관의 특성에 따라 전문도서관의 운영환경이 상이하므로, 설립주체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영역별 평가점수 비교를 위해 배점별 평균점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진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도서관 평가 시 제출한 봉사대상자 수, 도서관 직원 수, 사서 직원 수, 자료구입예산 등 기관 규모 및 도서관 인력에 대한 정량적 통계지표와 영역별 평가결과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평가 영역별 분석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전문도서관의 응답기관은 총 63개관으로 기관특성에 따라 분류해 보면 <표 2>와 같다. 응답현황을 전문도서관의 주제분야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예술 분야는 60.3%(38개관)로 과학기술 분야 39.7%(25개관)보다 많았다.

설립주체별로는 공공기관이 90.5%로 민간의 9.5%에 비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도서관의 세부 설립주체별로 보면, 기타공공기관(출연연 등)의 비율이 50.8%(32개관)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14.3%(9개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12.7%(8개관), 중앙행정기관과 기업체 및 민간단체는 각각 9.5%(6개관)로 나타났다. 전문도서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서울, 경기, 대전 지역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 전문도서관 응답기관 현황

구 분		도서관수	비율(%)
주제분야	인문사회예술	38	60.3
	과학기술	25	39.7
설립주체	공공	57	90.5
	민간	6	9.5
전문도서관 세부 설립주체	중앙행정기관	6	9.5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8	12.7
	기타공공기관(출연연 등)	32	50.8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9	14.3
	기업체 및 민간단체	6	9.5
	병원 및 기타	2	3.2
	지역		
	서울	28	44.4
	경기	14	22.2
	대전	10	15.9
	부산	5	7.9
	기타 지역	6	1.6
합계		63	100.0

3.1 도서관 경영 영역

전문도서관 운영평가 지표의 도서관 경영 영역은 도서관 계획 및 평가, 도서관 위상, 업무표준화, 도서관 마케팅의 4개 평가항목과 5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표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3.1.1 지표 1-1. 도서관 계획수립

〈지표 1-1〉은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간 도서관 운영계획, 연차보고서 등 도서관 계획수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측정한 지표이다. 63개 응답 도서관 중 연간 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도서관이 51.5%(50개관)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도서관은 24.7%(24개관), 연차보고서 작성 도서관은 23.7%(23개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계획수립의 평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도서관은 19.0%(12개관)로 나타났고, 도서관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는 도서관은 9.5%(6개관)로 조사되었다.

3.1.2 지표 1-2. 도서관 혁신활동 및 운영평가

〈지표 1-2〉는 이용자 만족을 위한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의 혁신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도서관 경영 개선을 위해 혁신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42.9%(27개관)로 나타났다. 도서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34.9%(22개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도서관은 34.9%(22개관)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혁신활동 및 운영평가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한 기관은 14.3%(9개관)로 매우 낮았고, 도서관 혁신활동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33.3%(21개관)로 대체로 높았다.

3.1.3 지표 1-3. 소속기관 내 도서관 위상

〈지표 1-3〉은 소속기관에서 도서관 담당부서와 부서장이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도서관 부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은 31.7%(20개관)로 그렇지 않은 기관인 68.3%(43개관)에 비해 매우 낮았다. 또한 도서관 예산이 독립적으로 책정된 도서관은 51.1%(47개관)로 나타났고, 도서관 최고관리자의 사서자격증 보유기관은 39.7%(25개관)로 조사되었다. 도서관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관의 비율을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83.3%),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77.8%), 기업체 및 민간단체(83.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75.%)에서 매우 높았다.

〈지표 1-3〉의 평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20.6%(13개관)로 나타났고, 전혀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19.0%(12개관)로 기관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4 지표 1-4. 업무편람의 최신성

〈지표 1-4〉는 기관장 및 부서장이 승인한 업무편람, 업무 매뉴얼의 갱신빈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전체 응답 도서관 중 55.6%(35개관)가 최근 3년 이내에 업무편람을 개정(제정)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업무편람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업무편람은 있으나 3년 이내 개정되지 않은 경우는 19.0%(12개관)이며, 업무편람이 없는 기관은 25.4%(16개관)로 조사되었다. 특히 업무편람의 최신성 지표는 도서관 경영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3.1.5 지표 1-5. 도서관 홍보활동 실적

〈지표 1-5〉는 기관 내 홈페이지, 게시판, 브로슈어, 뉴스레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도서관 홍보활동 실태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홍보매체 유형을 제시한 후 복수응답 방식으로 자료를 취합하였다. 응답 도서관 중 기관 게시판(전자게시판)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이 각각 77.8%(49개관), 71.4%(45개관)로 매우 높았다. 도서관 안내 브로슈어 및 팸플릿 제작 배포가 33.3%(21개관), 도서관 뉴스레터 제작 배포가 25.4%(16개관)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인쇄 매체보다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항목에 제시된 홍보활동 유형을 모두 수행하는 도서관은 20.6%(13개관)이고 도서관 홍보를 전혀 하지 않는 기관은 1.6%(1개관)로 나타나, 대체로 최소 하나 이상의 매체를 통해 도서관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3.1.6 종합분석

도서관 경영 영역 5개 지표의 배점에 따라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표 3〉과 같이 전문도서관

특성별로 평균점수를 도출하였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예술 분야의 전문도서관이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 〈지표 1-3〉, 〈지표 1-5〉에서 다소 높은 평가를 받았고, 과학기술 분야는 〈지표 1-1〉, 〈지표 1-2〉, 〈지표 1-4〉에서 높았다. 전반적인 평가점수는 과학기술 분야가 인문사회예술 분야보다 높았으며, 이는 도서관 계획 수립과 업무편람의 최신성의 점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지표 1-1〉에서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지표 1-2〉, 〈지표 1-3〉, 〈지표 1-4〉는 기타 공공기관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표 5〉는 병원 및 기타기관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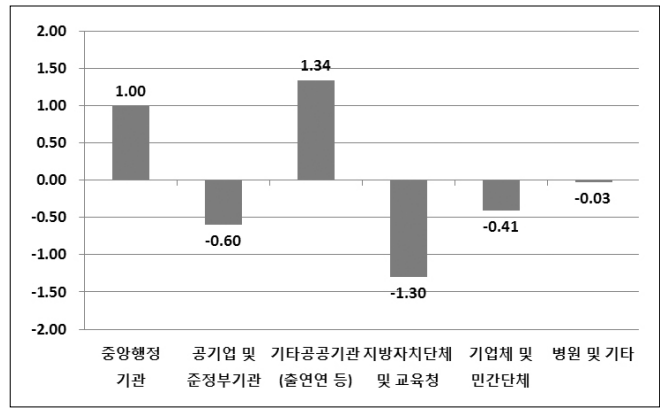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기타 공공기관(출연연 등)의 평가점수(8.78)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8.33), 병원 및 기타(7.00),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6.25),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5.33)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로 도서관 경영영역 평가의 상대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그림 1〉

〈표 3〉 도서관 경영영역 도서관특성별 분석

평가지표	배점	전체 평균	주제별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					
			인문사회 예술	과학기술	중앙행정 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출연연 등)	지방자치 단체 및 교육청	기업체 및 민간단체	병원 및 기타
지표 1-1	3	1.54	1.42	1.72	<u>2.00</u>	1.63	1.66	1.00	1.17	1.50
지표 1-2	3	1.13	1.11	1.16	1.33	1.00	<u>1.38</u>	0.44	0.83	1.00
지표 1-3	3	1.46	1.58	1.28	1.33	0.75	<u>1.78</u>	1.33	1.33	0.50
지표 1-4	2	1.30	1.16	1.52	1.50	1.25	<u>1.56</u>	0.56	0.83	1.50
지표 1-5	4	2.22	2.29	2.12	2.17	1.63	2.41	2.00	2.33	<u>2.50</u>
소계	15	7.65	7.55	7.80	8.33	6.25	<u>8.78</u>	5.33	6.50	7.00

(밑줄: 설립주체별 최고점, 이탤릭체: 설립주체별 최저점)



〈그림 1〉 도서관 경영 영역 도서관 설립주체별 표준점수

과 같이 종합평가점수를 표준점수(Z score)²⁾로 변환하여 도식화하였다. 중앙행정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서관 경영 영역의 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인적자원 영역

인적자원 영역은 사서직원의 규모, 직원의 안정성과 전문성, 도서관 교육훈련의 3개 평가항목과 7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표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3.2.1 지표 2-1. 사서직원 1인당 봉사대상자 수

〈지표 2-1〉은 적정 수준의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최소한 갖추어야 할 사서직원의 규모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소속기관의 전체 봉사대상자 수를 도서관의 사서직원 수로 나눈 결과 값을 통해 평가하였다. 사서직원 1인당 봉사대상자 수가 100명 이하라고 응답한 기관이 41.3%

(26개관)로 가장 많고, 300명 이하는 34.9%(22개관), 500명 이하는 7.9%(5개관), 500명 초과는 14.3%(9개관)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설립주체별로 분석해 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300명 이하의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고, 기타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100명 이하가 각각 50.0%, 55.6%로 가장 높았다

3.2.2 지표 2-2. 전체 도서관 직원 중 정규직원의 비율

〈지표 2-2〉는 도서관 업무에 종사하는 전일제 근무 직원 중 비정규직 직원을 제외한 정규직원의 비율을 평가한 것이다. 도서관의 정규직원 비율이 75%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38.1%(23개관),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44.4%(28개관)로 조사되었다. 정규직원이 없는 기관은 12.7%(8개관)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도서관 직원 중 정규직원이 과반인 기관이 전체의 82.5%로 나타났다. 도서관 설립

2) Z score: 표준점수의 하나로서 평균으로부터의 편차점수를 그 분포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얻어진 전환지수의 하나이다. 표준 정상 분포에서 $Z \text{ score} = (\text{원점수} - \text{평균}) / \text{표준편차}$ 로 구해진다. 한 표집 자료에서 모든 Z score의 평균은 0이고, 표준편차는 1이다.

주체별로 분석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75% 이상인 기관이 55.6%로 타 기관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았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인 기관이 전체 응답기관 중 50.0%로 타 기관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가장 높았다.

3.2.3 지표 2-3. 도서관 직원 중 사서직원의 비율

〈지표 2-3〉은 도서관 업무에 종사하는 전일제 근무 직원 중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서직원 비율이 75% 이상이라고 응답한 도서관은 66.7%(42개관)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25.4%(16개관)로 나타났다. 사서직원이 없는 기관은 6.3%(4개관)로 조사되었다. 사서직원 비율이 과반수인 기관이 92.1%로 대부분 도서관 내에 일정 수 이상의 사서직원을 배치하고 있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사서직원 비율이 75%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83.3%로 나타나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3.2.4 지표 2-4. 도서관 직원 중 1급 정사서 직원의 비율

〈지표 2-4〉는 도서관 업무에 종사하는 전일제 근무 직원 중 1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을 평가하는 것이다. 1급 정사서 직원이 없는 도서관이 69.8%(44개관)로 가장 높았고,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19.0%(12개관), 75%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9.5%(6개관)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1급 정사서 직원이 전혀 배

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 공공기관은 1급 정사서 배치가 50% 이상인 비율이 28.1%로 나타나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3.2.5 지표 2-5. 도서관 직원 중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 및 복수학위 소지자 비율

〈지표 2-5〉는 주제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서의 자격요건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전체 응답 도서관 중 석사 및 복수학위 소지자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기관이 60.3%(38개관)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50% 이상은 22.2%(14개관), 25% 이상은 9.5%(6개관)로 나타났다. 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기업체 및 민간단체, 병원 및 기타기관의 경우 석사 및 복수학위 소지자가 전혀 없었다. 중앙행정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50% 이상 배치된 비율이 각각 33.3%, 28.1%로 나타나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3.2.6 지표 2-6. 도서관 직원의 단기 교육훈련 참여율

〈지표 2-6〉은 사서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 참가율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응답 도서관 중 단기 교육훈련 참가율이 100%인 기관은 36.5%(23개관)로 나타났고,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28.6%(18개관)로 조사되었다. 단기교육을 전혀 참가하지 않는 기관은 34.9%(22개관)로 나타났다. 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단기 교육훈련을 100% 참가한 비율이 각각 50%, 55.6%로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업체 및 민간단체와 병원 및 기타기관은 단기 교육훈련 참여가 전혀 없었다.

3.2.7 지표 2-7. 도서관 직원의 장기 교육훈련 참여실적

〈지표 2-7〉은 국내의 정규 교육기관에 등록하거나 실무기관에 파견되어 1개월 이상 받는 장기 교육훈련 참여실적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장기 교육훈련 참여실적이 있는 도서관은 12.7% (8개관)로 나타났고, 참여실적이 없는 경우는 87.3%(55개관)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기타공공기관은 장기 교육훈련 참가실적 비율이 18.8%로 나타나 타 기관에 비해 가장 높았다. 대체로 장기 교육훈련 참여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전문도서관 사서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도서관 업무를 장기간 비울 수 없기 때문이다.

3.2.8 종합분석

인적자원 영역 7개 지표의 배점에 따라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표 4〉와 같이 전문도서관 특성별로 종합점수를 도출하였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예술 분야의 전문도서관이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 〈지표 2-1〉, 〈지표 2-2〉, 〈지

표 2-3〉, 〈지표 2-4〉, 〈지표 2-5〉에서 다소 높은 평가를 받았고, 과학기술 분야는 〈지표 2-6〉, 〈지표 2-7〉에서 높았다. 전반적인 평가점수는 인문사회예술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보다 높았다. 사서직원의 규모, 도서관 직원의 안정성과 전문성 평가는 인문사회예술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평가는 과학기술 분야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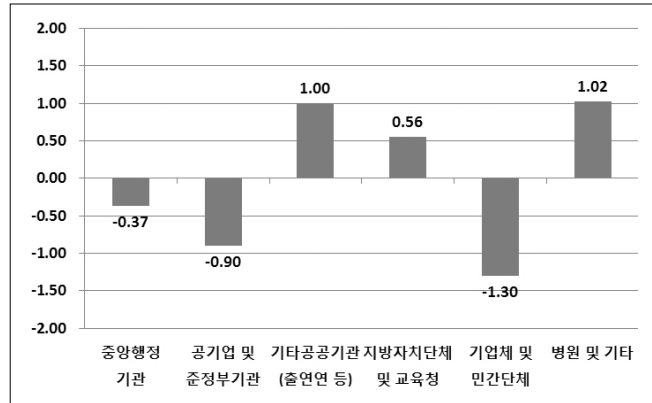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기타 공공기관이 〈지표 2-4〉, 〈지표 2-5〉, 〈지표 2-7〉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병원 및 기타기관은 〈지표 2-1〉, 〈지표 2-2〉, 〈지표 2-3〉, 〈지표 2-6〉에서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이에 비해 기업체 및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지표 2-4~7〉의 4개 지표에서 평가 최저점(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훈련 참여에 대한 독려가 필요하다.

종합하면 병원 및 기타기관의 평가점수(9.00)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타 공공기관(8.97),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8.33), 중앙행정기관(7.00),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6.25), 기업체 및

〈표 4〉 인적자원 영역 도서관특성별 분석

평가지표	배점	전체 평균	주제별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					
			인문사회 예술	과학기술	중앙행정 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출연연 등)	지방자치 단체 및 교육청	기업체 및 민간단체	병원 및 기타
지표 2-1	4	3.00	3.18	2.72	2.33	2.25	3.34	2.89	2.83	3.50
지표 2-2	2	1.21	1.29	1.08	0.83	1.25	1.16	1.33	1.50	1.50
지표 2-3	2	1.59	1.61	1.56	1.83	1.38	1.63	1.56	1.33	2.00
지표 2-4	2	0.48	0.53	0.40	0.00	0.25	0.72	0.56	0.00	0.00
지표 2-5	2	0.62	0.76	0.40	0.67	0.38	0.84	0.56	0.00	0.00
지표 2-6	2	1.02	0.97	1.08	1.17	0.75	1.09	1.33	0.00	2.00
지표 2-7	1	0.13	0.08	0.20	0.17	0.00	0.19	0.11	0.00	0.00
소계	15	8.03	8.42	7.44	7.00	6.25	8.97	8.33	5.67	9.00

(밑줄: 설립주체별 최고점, 이탤릭체: 설립주체별 최저점)



〈그림 2〉 인적자원 영역 도서관 설립주체별 표준점수

민간단체(5.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로 도서관 인적자원 영역 평가의 상대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종합평가점수를 표준점수(Z score)로 변환하여 도식화하였다. 기타공공기관, 병원 및 기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에 있었다. 병원 및 기타기관은 3개 지표에서 최저점(0점)을 받았으나, 배점이 높은 사서직원 규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표준점수 상의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하였다. 응답 도서관 중 봉사대상자 1인당 도서관 면적이 1㎡ 이상인 도서관은 54.0%(34개관), 1㎡ 미만인 도서관은 46.0%(29개관)으로 나타났다.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봉사대상자 1인당 도서관 면적이 1㎡ 이하인 기관의 비율이 높았고, 기타공공기관과 기업체 및 민간단체는 1㎡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전문도서관의 자원이용 비중이 인쇄자원에서 전자자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전자자원 위주의 디지털도서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도서관 면적의 평가기준 논의가 필요하다.

3.3 시설환경 영역

시설환경 영역은 도서관 면적, 이용자 시설, 전산환경의 3개 평가항목과 3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표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3.3.1 지표 3-1. 봉사대상자 1인당 도서관 면적
〈지표 3-1〉은 도서관의 적정 서비스 면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무공간을 포함한 도서관 전체면적을 전체 봉사대상자 수로 나눈 값을 통해

3.3.2 지표 3-2. 이용자 편의시설

〈지표 3-2〉는 열람테이블, 복사기, 이용자 PC, 세미나실 등 최소한의 이용자 편의시설 구비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응답 도서관 중 복사기 및 스캐너 보유기관이 95.2%(60개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람 테이블 및 소파가 92.1%(58개관), 정보검색용 이용자 PC가 92.1%(58개관), LAN 또는 무선인터넷 시설 73.0%(46개관)로 조사되었다. 회의실 및 세미나

나실의 경우에는 33.3%(21개관)로 타 편의시설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도서관 운영지표 가운데 100점 환산점수가 96.8%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의 기관이 최소한의 이용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3 지표 3-3. 전산 시스템 운영환경

〈지표 3-3〉은 도서관 시스템 운영환경의 구축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응답 도서관 중 도서관 전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79.4%(50개관)로 나타났고, 도서관 별도 홈페이지 운영은 76.2%(48개관), 도서관 전용 서버 운영은 65.1%(41개관), 도서관 이용통계 시스템 운영은 50.8%(32개관), 접속속도 T1급 이상 인터넷 환경은 46.0%(29개관), 내부 성과물 시스템 운영은 34.9%(22개관)로 조사되었다.

3.3.4 종합분석

시설환경 영역 3개 지표의 배점에 따라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표 5〉와 같이 전문도서관 특성별로 평균점수를 도출하였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예술포 분야는 전문도서관이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 〈지표 3-2〉, 〈지표 3-3〉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과학기술 분야는 〈지표

3-1〉에서 높았다. 전반적인 평가점수는 인문사회예술포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지표 3-1〉은 기업체 및 민간단체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소속 이용자 수가 대체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지표 3-2〉의 경우 기타 공공기관이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지표 3-3〉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점수(4.00)가 가장 높았고 병원 및 기타기관의 평가점수(2.00)가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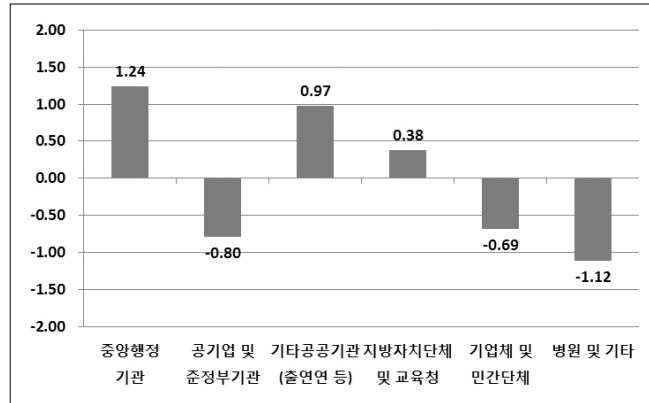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점수(8.33)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타공공기관(8.13),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7.67), 기업체 및 민간단체(6.8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6.75), 병원 및 기타기관(6.50)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시설환경 영역 평가의 상대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종합평가점수를 표준점수(Z score)로 변환하여 도식화하였다. 중앙행정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환경 영역의 평가가 우수한

〈표 5〉 시설환경 영역 도서관특성별 분석

평가지표	배점	전체 평균	주제별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					
			인문사회예술포	과학기술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출연연 등)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기업체 및 민간단체	병원 및 기타
지표 3-1	2	1.54	1.53	1.56	1.33	1.50	1.66	1.22	1.67	1.50
지표 3-2	3	2.90	2.97	2.80	3.00	2.88	2.84	3.00	3.00	3.00
지표 3-3	5	3.29	3.50	2.96	4.00	2.38	3.63	3.44	2.17	2.00
소계	10	7.73	8.00	7.32	8.33	6.75	8.13	7.67	6.83	6.50

(밑줄: 설립주체별 최고점, 이탤릭체: 설립주체별 최저점)



〈그림 3〉 시설환경 영역 도서관 설립주체별 표준점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 및 기타기관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4 정보자원 영역

정보자원 영역은 장서개발정책, 자료구입예산, 자료수집, DB 구축의 4개 평가항목과 1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표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3.4.1 지표 4-1. 장서개발정책의 성문화

〈지표 4-1〉은 장서개발의 계획, 목적, 방법 등을 기술한 성문화된 문서 작성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응답 도서관 중 성문화된 중장기 장서개발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15.9% (10개관)로 매우 낮았다. 또한 연간 장서개발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38.1% (24개관)로 나타났고, 장서 선정규정은 41.3% (26개관), 장서 폐기규정은 61.9% (39개관)로 조사되었다. 장서에 대한 실무적인 관리규정은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의 장서개발정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중

장기 장서개발계획이 성문화 된 도서관은 중앙행정기관이 33.3%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병원 및 기타기관은 전혀 없었다. 연간 장서개발계획은 기타공공기관의 응답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고, 기업체 및 민간단체와 병원 및 기타기관은 전무하였다.

3.4.2 지표 4-2. 봉사대상자 1인당 자료구입비

〈지표 4-2〉는 자료구입예산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쇄 및 전자자료를 포함한 자료구입예산 총액을 전체 봉사대상자 수로 나눈 결과값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평가한 지표이다. 이 때 증감은 5%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감률이 5% 미만일 경우는 동일로 간주한다. 응답 도서관 중 봉사대상자 1인당 자료구입비가 동일하다는 기관은 49.2% (31개관)로 가장 높았고, 증가한 기관은 27.0% (17개관), 감소한 기관은 20.6% (13개관)로 조사되었다. 미응답 기관은 3.2% (2개관)로 나타났다. 대체로 1인당 자료구입비가 전년과 비슷한 가운데 증가한 기관이 감소한 기관보다 많았다.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증가했다는 응답이

38.7%로 가장 높았고, 중앙행정기관은 동일하다는 응답이 83.3%로 가장 높았다.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병원 및 기타기관이 각각 42.9%, 50.0%로 높았다.

3.4.3 지표 4-3. 봉사대상자 1인당 인쇄자료 수 <지표 4-3>은 도서관 소장 인쇄자료 건수를 전체 봉사대상자 수로 나눈 결과 값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평가한 지표이다. 응답 도서관 중 봉사대상자 1인당 인쇄자료 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관은 42.9%(27개관)로 가장 높았고, 동일한 기관은 39.7%(25개관), 감소한 기관은 12.7%(8개관)로 조사되었다. 미응답 기관은 4.8%(3개관)로 나타났다.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기타공공기관, 병원 및 기타기관은 1인당 인쇄자료 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4 지표 4-4. 봉사대상자 1인당 전자자료 수 <지표 4-4>는 도서관 소장 전자자료 건수를 전체 봉사대상자 수로 나눈 결과 값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평가한 지표이다. 응답 도서관 중 1인당 전자자료 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관은 50.8%(32개관)로 가장 높았고, 동일한 기관은 28.6%(18개관), 감소한 기관은 15.9%(10개관)로 조사되었다. 미응답 기관은 4.8%(3개관)로 나타났다. 대체로 인쇄자료와 전자자료의 양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자자료의 증가폭이 인쇄자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증가했다는 응답이 83.3%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감소했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높았다.

3.4.5 지표 4-5. 도서 기본자료 확보

<지표 4-5>에서 <지표 4-7>까지는 도서관의 기본자료 확보에 대한 평가이다. 기본자료는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전문도서관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인쇄 및 전자자료를 의미한다. 이때 기본자료의 평가기준은 도서관의 봉사대상자 수에 따라 상이하다.

도서의 기본자료 수를 초과하는 도서관이 44.4%(28개관)로 가장 높았고, 미달되는 도서관은 36.5%(23개관), 적정수준인 도서관이 17.5%(11개관)로 나타났다.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기타공공기관은 초과한 비율이 67.7%로 나타났고 그 외 기관은 초과 비율이 모두 50.0%를 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기업체 및 민간단체는 미달 비율이 66.7%로 나타났고 그 외 기관은 대체로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3.4.6 지표 4-6. 연속간행물 기본자료 확보

연속간행물에 대한 기본자료 확보수준을 평가한 결과, 자료수가 미달되는 도서관이 50.8%(32개관)로 가장 높았고 초과한 도서관은 36.5%(23개관), 적정수준인 도서관은 17.5%(11개관)로 나타났다.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기타공공기관은 초과한 비율이 48.4%로 나타났고 그 외 기관은 모두 초과 비율이 20.0%를 넘지 않았다. 기업체 및 민간단체는 자료수가 모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미달비율은 66.7%, 공기업 및 정부기관은 62.5%로 나타나 연속간행물 보유수준이 매우 미흡하였다. 연속간행물 이용이 인쇄자료에서 전자자료로 대체됨에 따라, 구독갱신에 따른 비용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3.4.7 지표 4-7. 기타자료 기본자료 확보

도서 및 연속간행물 외 기타자료에 대한 기본자료 확보수준을 평가한 결과, 자료수가 미달되는 도서관이 60.3%(38개관)로 가장 높았고, 초과한 도서관은 23.8%(15개관), 적정수준인 도서관이 12.7%(8개관)로 나타났다.

3.4.8 지표 4-8. 정보자원의 다양성

〈지표 4-8〉은 정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외부에서 수집한 정보자원의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 때 정보자원은 E-Book, E-Journal, 상용 서지 DB, 기타 특이자료를 포함한다. 응답 도서관 중 E-Journal을 구독하고 있는 도서관은 61.9%(39개관)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E-Book이 46.0%(29개관), 상용 서지 DB가 42.9%(27개관), 기타 특이자료가 23.8%(15개관)로 나타났다.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특히 E-Journal 구독 비율은 중앙행정기관이 100%, 기타공공기관이 81.3%로 매우 높았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기업체 및 민간단체의 경우 20%를 넘지 않았다.

제시된 정보자원 4가지 유형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17.5%(11개관)로 나타났고, 3가지 보유기관은 19.0%(12개관), 2가지 보유기관은 12.7%(8개관), 1가지 보유기관은 22.2%(14개관)로 나타났다.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이 28.6%(18개관)로 나타나 기관간 정보자원 다양성의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3.4.9 지표 4-9. 소속기관 내부 특성화 자료

〈지표 4-9〉는 기관 내에서 생산된 자료를 DB화한 기관 고유의 특성화 자료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특성화 자료는 연구보고서, 내부 성과

물, 내부 기록물, 기타 내부 특성화자료로 구분하였고 이를 복수응답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응답 도서관 중 기관 연구보고서를 구축한 도서관은 77.8%(49개관)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내부 성과물이 60.3%(39개관), 내부 기록물이 39.7%(25개관), 기타 내부 특성화 자료가 19.0%(12개관)로 나타났다.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연구보고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구축비율이 87.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내부 기록물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구축비율이 66.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기관의 특성상 행정기록물의 생산량이 많고 그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내부 특성화 자료 4가지 유형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12.7%(8개관)로 나타났고,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은 7.9%(5개관)로 나타났다.

3.4.10 지표 4-10. 자체 DB 구축 건수

〈지표 4-10〉은 도서관에서 연간 자체적으로 구축한 DB 레코드 건수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산출하여 평가한 지표이다. 자체 DB 구축 건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관은 55.6%(35개관)로 가장 높았고, 동일한 기관은 28.6%(18개관), 감소한 기관은 11.1%(7개관)로 조사되었다. 미응답 기관은 4.8%(3개관)로 나타났다.

3.4.11 종합분석

정보자원 영역 10개 지표의 배점에 따라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표 6〉과 같이 전문도서관 특성별로 배점별 평균점수를 도출하였다. 주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예술 분야의 전문도서관이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 〈지표 4-1〉만 높은

〈표 6〉 정보자원 영역 도서관특성별 분석

평가지표	배점	전체 평균	주제별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					
			인문사회 예술	과학기술	중앙행정 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출연연 등)	지방자치 단체 및 교육청	기업체 및 민간단체	병원 및 기타
지표 4-1	4	1.57	1.66	1.44	1.17	1.50	1.78	1.22	1.67	1.00
지표 4-2	2	1.03	0.95	1.16	1.17	0.50	1.19	0.89	1.17	0.50
지표 4-3	2	1.25	1.11	1.48	1.33	1.13	1.38	0.89	1.33	1.00
지표 4-4	2	1.30	1.08	1.64	1.83	1.25	1.56	0.56	0.83	0.50
지표 4-5	2	1.06	1.00	1.16	0.83	1.00	1.41	0.67	0.50	0.00
지표 4-6	2	0.75	0.68	0.84	0.67	0.50	1.06	0.44	0.00	0.50
지표 4-7	2	0.60	0.55	0.68	0.83	0.50	0.84	0.22	0.00	0.00
지표 4-8	3	1.57	1.29	2.00	2.00	1.50	2.06	0.56	0.67	0.00
지표 4-9	4	1.97	1.95	2.00	2.50	1.63	2.28	1.56	0.83	2.00
지표 4-10	2	1.40	1.34	1.48	1.50	1.50	1.41	1.56	1.17	0.50
소계	25	12.33	11.37	13.80	13.83	10.88	14.78	8.44	7.67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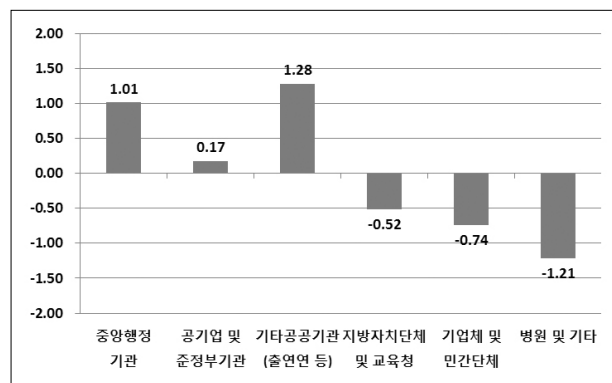
(밑줄: 설립주체별 최고점, 이탤릭체: 설립주체별 최저점)

평가를 받았고, 그 외 지표는 모두 과학기술 분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 분야는 장서개발정책 항목에서, 인문사회예술 분야는 자료구입예산, 자료수집, DB 구축 항목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지표 4-4〉, 〈지표 4-9〉에서 평가점

수가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지표 4-10〉에서 가장 높았다. 그 외 7개 지표에서는 기타공공기관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병원 및 기타기관은 정보자원 영역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로 도서관 정보자원 평가의 상대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그림 4〉



〈그림 4〉 정보자원 영역 도서관 설립주체별 표준점수

와 같이 종합평가점수를 표준점수(Z score)로 변환하여 도식화하였다. 중앙행정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서관 경영 영역의 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체 및 민간단체와 병원 및 기타기관의 평가점수가 매우 낮았다.

3.5 정보서비스 영역

정보서비스 영역은 도서관 이용, 이용자 지원, 상호협력, 서비스 개선 4개 평가항목과 13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표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3.5.1 지표 5-1. 봉사대상자 1인당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횟수

〈지표 5-1〉은 연간 홈페이지 접속횟수를 전체 봉사대상자 수로 나눈 결과 값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평가한 지표이다. 응답 도서관 중 1인당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횟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관은 36.5%(23개관), 동일한 기관은 36.5%(23개관)로 나타났다. 반면 감소한 기관은 15.9%(10개관)로 대체로 낮았고 미응답 기관은 11.1%(7개관)로 나타났다. 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증가했다는 응답이 51.9%로 타 기관에 비해 높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동일하다는 응답비율이 66.7%로 가장 높았다. 홈페이지 접속횟수는 대체로 감소한 기관보다 증가한 기관이 많았다.

3.5.2 지표 5-2. 봉사대상자 1인당 전자원문 다운로드 건수

〈지표 5-2〉는 연간 소속기관 전체 전자원문

다운로드 건수를 전체 봉사대상자 수로 나눈 결과 값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평가한 지표이다. 응답 도서관 중 1인당 전자원문 다운로드 건수가 동일하다고 응답한 기관은 49.2%(31개관)로 가장 높았고, 증가한 기관은 20.6%(13개관), 감소한 기관은 15.9%(12개관)로 조사되었다. 미응답 기관은 11.1%(7개관)로 나타났다. 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증가했다는 응답이 각각 33.3%, 37.0%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경우 감소했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았다. 1인당 전자원문 다운로드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3.5.3 지표 5-3. 봉사대상자 1인당 인쇄자료 대출건수

〈지표 5-3〉은 연간 소속기관 전체 인쇄자료 대출건수를 전체 봉사대상자 수로 나눈 결과 값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평가한 지표이다. 응답 도서관 중 1인당 인쇄자료 대출건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관은 42.9%(27개관)로 가장 높았고, 동일한 기관은 25.4%(16개관), 감소한 기관은 22.2%(14개관)로 조사되었다. 미응답 기관은 9.6%(6개관)로 나타났다. 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병원 및 기타기관은 증가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기업체 및 민간단체는 감소했다는 응답이 각각 44.4%, 60.0%로 많았다.

3.5.4 지표 5-4. 도서관 이용자 수

〈지표 5-4〉는 연간 1회 이상 도서관 자료의

대출, 원문복사, 상호대차를 제공받은 고유 봉사대상자 수를 전체 봉사대상자 수로 나눈 결과 값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평가한 지표이다. 응답 도서관 중 도서관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관은 41.3%(26개관)로 가장 높았고, 동일한 기관은 27.0%(17개관), 감소한 기관은 25.4%(16개관)로 조사되었다. 미응답 기관은 6.3%(4개관)로 나타났다. 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병원 및 기타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도서관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각각 100.0%, 75.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는 감소했다는 응답이 각각 50.0%, 60.0%로 많았다. 기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증가 비율이 감소비율보다 다소 높았다.

3.5.5 지표 5-5. 참고정보서비스

〈지표 5-5〉는 이용자 질의에 대한 참고정보서비스의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평가의 측정은 참고정보서비스의 3가지 유형을 제시한 후 복수응답으로 회신하여 분석하였다. 응답 도서관 중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참고정보서비스 제공 도서관은 전체 도서관 중 82.5%(52개관)로 나타났다. 전자게시판이나 Q&A를 통한 참고정보 서비스는 44.4%(28개관), 기타 참고정보 서비스는 25.4%(16.7%)로 조사되었다. 기타 참고정보 서비스는 방문면담 방식, 사내 메신저를 통한 방식, 연구과제 수행 지원, 휴대폰 및 팩스를 통한 방식 등이 있었다. 참고정보서비스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과 병원 및 기타기관이 100.0% 실시하고 있었고, 반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55.6%로

가장 낮았다. 전자게시판 또는 Q&A를 통한 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실시비율이 각각 66.7%, 53.1%로 높았고, 기업 및 민간단체는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5.6 지표 5-6. 주제전문서비스

〈지표 5-6〉은 도서관이 특정 주제분야에 대해 개인, 연구사업, 이용자 그룹별로 전문화된 심층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다. 응답 도서관 중 주제전문 서비스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도서관 중 19.0%(12개관)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과제 수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38.1%(24개관), SDI 및 최신주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30.2%(19개관), 기타 주제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은 30.2%(19개관)로 조사되었다. 다중응답분석을 통해 응답결과를 종합해 보면, 제시된 평가항목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12.7%(8개관)에 불과하였고, 주제전문서비스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50.8%(32개관)로 매우 많았다.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평가항목을 모두 충족한 8개관 중 기타공공기관(출연연 등)이 7개관이었다. 특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평가항목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75.0%로 매우 높았다.

3.5.7 지표 5-7. 이용자 교육

〈지표 5-7〉은 이용자 중심의 면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실태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평가의 측정은 도서관 이용교육, 정보 활용 교육, 신입직원 교육의 3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수행여부를 조사하였다. 응답 도서관 중 도서관 이용교

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관은 전체 도서관 중 33.3%(21개관)로 조사되었고, 신입직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관은 38.1%(24개관), 정보 활용 교육 실시 기관은 39.7%(25개관)로 나타났다. 이용자 교육의 3가지 유형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은 25.4%(16개관)이며, 이용자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기관은 49.2%(31개관)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기업체 및 민간단체의 비율이 각각 77.8%, 8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5.8 지표 5-8. 정보자원 안내

〈지표 5-8〉은 도서관 정보자원에 대한 정기적인 안내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평가의 측정은 정보자원 안내와 관련된 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복수응답 방식으로 취합하였다. 응답 도서관 중 정기적인 신착자료 안내를 실시하는 기관은 77.8%(49개관)로 가장 높았다. 신간, 추천, 권장 도서 안내를 실시하는 기관은 58.7%(37개관), RSS 등 외부 링크를 통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27.0%(13개관)로 나타났다. 정보자원 안내의 4가지 유형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은 11.1%(7개관)이며, 정보자원 안내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 11.1%(7개관)로 분석되었다. 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3.5.9 지표 5-9.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참여

〈지표 5-9〉는 도서관 협력을 목적으로 국내외 협의회(체)의 참여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국내외 협의회(체)를 1개만 참여한 기관은 28.6%(18개관)으로 나타났고, 2개 참여는

17.5%(11개관), 3개 이상 참여는 39.7%(25개관)로 나타났다. 미응답 기관은 14.3%(9개관)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3개 이상 참여비율이 53.1%로 타 기관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응답 도서관 중 85.7%가 최소 1개 이상의 협의회(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10 지표 5-10. 원문복사 실적

〈지표 5-10〉은 원문복사 서비스 제공건수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평가한 지표이다. 응답 도서관 중 원문복사 실적이 동일하다고 응답한 기관은 34.9%(22개관)로 가장 높았고, 증가한 기관은 28.6%(18개관), 감소한 기관은 28.6%(18개관)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타공공기관의 비율이 31.3%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원문복사 실적의 증감률은 기관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3.5.11 지표 5-11. 상호대차 실적

〈지표 5-11〉은 상호대차 서비스 제공건수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평가한 지표이다. 응답 도서관 중 상호대차 실적이 동일하다고 응답한 기관은 49.2%(31개관)로 가장 높았고, 증가한 기관은 19.0%(12개관), 감소한 기관은 20.6%(13개관)로 조사되었다. 미응답 기관은 11.1%(7개관)로 나타났다.

3.5.12 지표 5-12. 외부 이용자 서비스

〈지표 5-12〉는 외부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응

답 도서관 중 외부이용자에게 소장자료의 관내 이용을 허용하는 도서관은 52.4%(33개관)로 나타났다. 관외이용을 허용하는 도서관은 23.8%(15개관)로 나타났다. 제시된 외부 이용자 서비스 3가지 유형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은 17.5%(11개관)이고, 외부 이용자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기관 역시 17.5%(11개관)로 나타났다. 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외부이용자의 관내이용을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관외이용은 전혀 허용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최소 1가지 이상의 외부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13 지표 5-13. 도서관 서비스 개선실적 <지표 5-13>은 도서관 서비스 개선활동의 명시적인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응답도서관 중 개선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이 60.3%(38개관)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가지 이상 개선(14.3%, 9개관), 1가지 개선(11.1%, 7개관), 2가지 개선(6.3%, 4개관), 3가지 개선(3.2%, 2개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응답기관은 4.8%(3개관)이었다.

3.5.14 기타. 정성평가
전문도서관은 모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추어 다양한 서비스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도서관 운영평가에서는 전문도서관의 개선실적을 사례중심으로 평가하여 5점의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다. 도서관 개선실적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5점과 4점은 1개관, 3점은 5개관, 2점은 3개관으로 나타났다. 이를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4점과 5점은 기타공공기관만

이 가산점을 획득하였고, 3점에서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1개관을 제외하고 모두 기타공공기관이 가산점을 획득하였다. 정성평가 점수는 가산점으로 활용되므로 전체 합산점수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3.5.15 종합분석

도서관 정보서비스 영역 13개 지표의 배점에 따라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표 7>과 같이 전문도서관 특성별로 평균점수를 도출하였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예술 분야의 전문도서관이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 <지표 5-8>, <지표 5-9>, <지표 5-11>, <지표 5-12>에서 다소 높았고, 과학기술 분야는 나머지 9개 지표에서 높았다. 전반적인 평가점수는 과학기술 분야가 인문사회예술 분야보다 높았으며, 도서관 이용영역 및 이용자 지원 평가항목에서 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참고정보서비스, 주제전문서비스, 이용자교육, 정보자원 안내 등 이용자 지원 영역의 모든 지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체 및 민간단체의 경우 정보 서비스 영역의 모든 지표에서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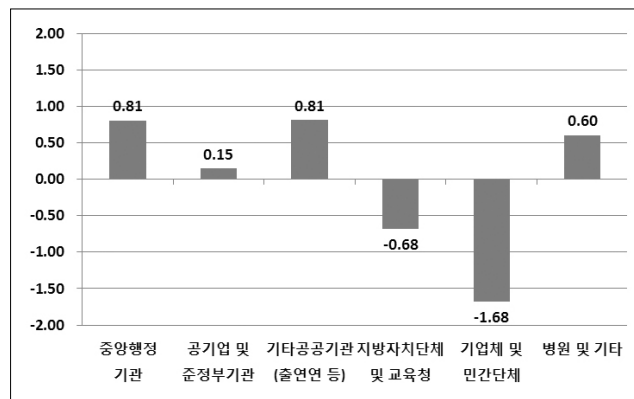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기타 공공기관(출연연 등)의 평가점수(17.6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17.67), 병원 및 기타(17.00),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15.50),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12.78), 기업체 및 민간단체(9.50)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로 도서관 정보 서비스 평가의 상대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그림

〈표 7〉 도서관 정보 서비스 영역 도서관특성별 분석

평가지표	배점	전체 평균	주체별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					
			인문사회 예술	과학기술	중앙행정 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출연연 등)	지방자치 단체 및 교육청	기업체 및 민간단체	병원 및 기타
지표 5-1	2	1.10	1.03	1.20	<u>1.33</u>	1.00	1.16	0.89	1.00	1.00
지표 5-2	2	0.90	0.84	1.00	<u>1.00</u>	0.88	0.97	0.67	0.83	<u>1.00</u>
지표 5-3	2	1.11	0.95	1.36	1.50	1.25	1.13	0.78	0.67	<u>2.00</u>
지표 5-4	2	1.10	1.00	1.24	0.83	1.75	1.00	1.22	0.50	<u>2.00</u>
지표 5-5	3	1.52	1.47	1.60	<u>2.00</u>	1.25	1.72	1.22	0.83	1.50
지표 5-6	4	1.17	1.16	1.20	<u>1.67</u>	0.63	1.53	0.56	0.50	1.00
지표 5-7	3	1.11	1.05	1.20	<u>1.67</u>	1.13	1.38	0.33	0.17	1.50
지표 5-8	3	1.86	1.89	1.80	<u>2.50</u>	1.88	1.94	1.78	1.17	1.00
지표 5-9	3	1.83	1.89	1.72	1.50	1.75	<u>2.13</u>	1.78	1.00	1.00
지표 5-10	2	0.92	0.87	1.00	0.67	1.38	0.91	0.67	0.83	<u>1.50</u>
지표 5-11	2	0.87	0.89	0.84	0.83	0.88	<u>0.91</u>	0.89	0.83	0.50
지표 5-12	3	1.51	1.58	1.40	1.50	1.25	1.59	1.44	1.17	<u>2.50</u>
지표 5-13	4	0.90	0.87	0.96	0.67	0.50	<u>1.34</u>	0.56	0.00	0.50
소계	35	15.90	15.50	16.52	17.67	15.50	<u>17.69</u>	12.78	9.50	17.00

(밑줄: 설립주체별 최고점, 이탤릭체: 설립주체별 최저점)



〈그림 5〉 도서관 정보 서비스 영역 설립주체별 표준점수

5)와 같이 종합평가점수를 표준점수(Z score)로 변환하여 도식화하였다. 기업체 및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종합평가

전문도서관 5개 영역별 평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표 8〉과 같이 도출하였다. 도서관 경영 영역의 배점이 15점일 때, 평가점수의 합

〈표 8〉 평가영역별 100점 환산점수

구 분	주제별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						평균
	인문사회 예술	과학기술	중앙행정 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출연연 등)	지방자치 단체 및 교육청	기업체 및 민간단체	병원 및 기타	
도서관 경영 영역	50.4	52.0	55.6	41.7	58.5	35.6	43.3	46.7	51.0
인적자원 영역	56.1	49.6	46.7	41.7	59.8	55.6	37.8	60.0	53.5
시설환경 영역	80.0	73.2	83.3	67.5	81.3	76.7	68.3	65.0	77.3
정보자원 영역	45.5	55.2	55.3	43.5	59.1	33.8	30.7	24.0	49.3
정보서비스 영역	44.3	47.2	50.5	44.3	50.5	36.5	27.1	48.6	45.4
종합점수	51.1	53.0	55.2	45.8	58.5	42.7	36.7	45.5	51.8

이 7.5점일 경우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50점이 된다.

종합평가 결과 전문도서관 5개 평가영역 중 시설환경 영역이 77.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적자원 영역이 53.5점, 도서관 경영 영역이 51.0점으로 분석되었다. 정보자원 영역은 49.3점으로 50점을 넘지 못했고, 정보서비스 영역은 45.4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도서관의 전체 평가점수는 51.8점으로 나타나 도서관 운영 측면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설립주체별로 비교해보면, 기타 공공기관이 5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앙행정기관이 55.2점으로 나타나, 두 기관 유형 모두 평균을 상회하였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45.8점, 병원 및 기타기관이 45.5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42.7점이 평균보다 낮았다. 기업체 및 민간단체는 36.7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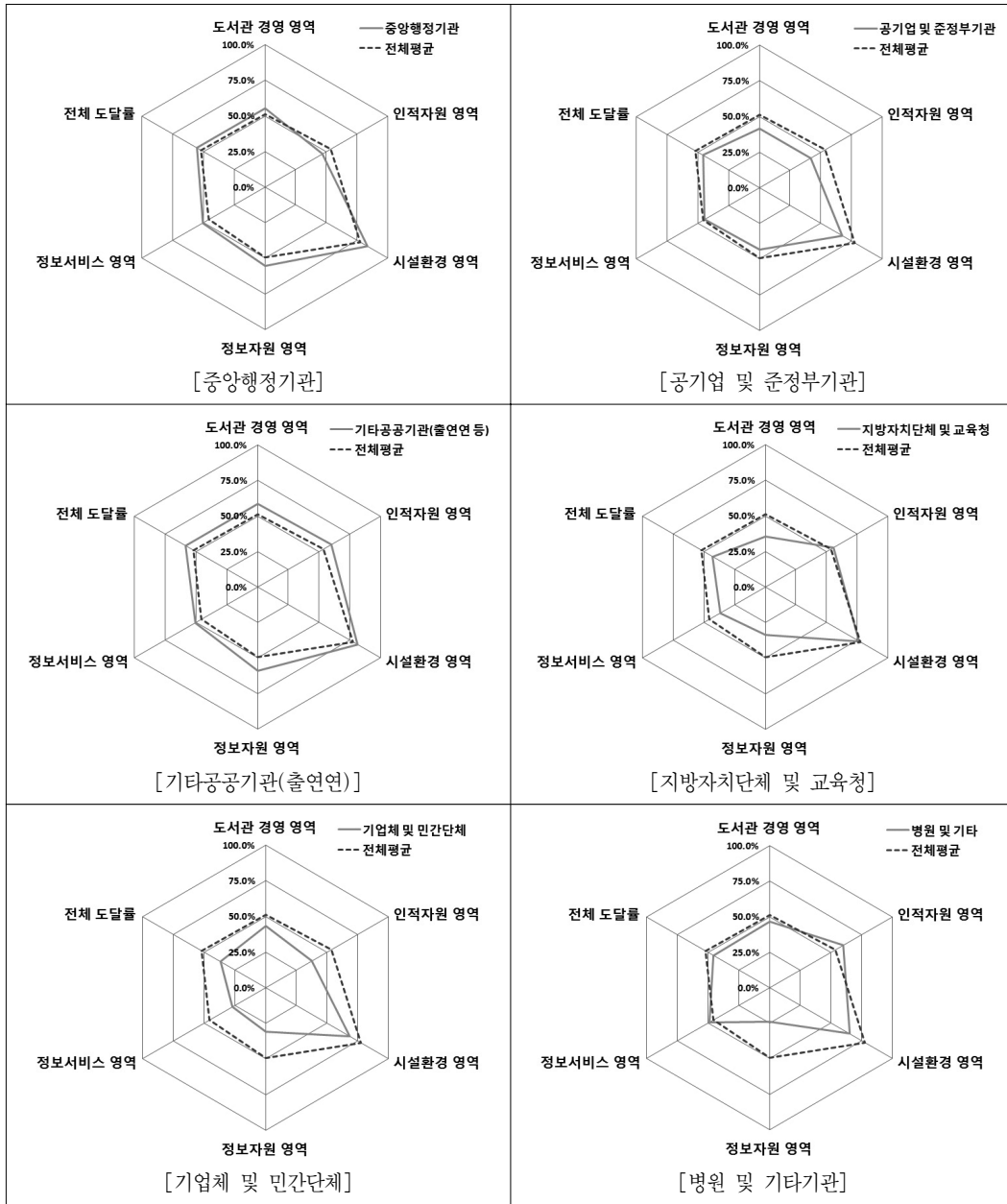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로 각 평가영역의 100점 환산점수를 도식화하면 〈그림 6〉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영역이 평균을 상회하는 가운데, 인적자원 영역만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도서관 직원

중 정규직, 사서직, 1급 정사서의 비율이 적정수준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모든 평가영역이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시설환경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환산점수가 50점을 넘지 못했다. 특히 인적자원 영역과 도서관 경영 영역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적자원 측면에서는 도서관 최고관리자가 사서인 기관이 전무하였고, 도서관 부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도서관 경영 측면에서는 도서관 직원의 전문성이 대체로 낮았고, 도서관 직원의 장단기 교육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공공기관은 모든 평가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환산점수가 모든 영역에서 50점을 넘었다. 특히 정보자원 영역에서 장서개발정책이 체계적으로 성문화되어 있었고, 자료구입예산과 자료수집실적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인적자원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도서관 경영 영역, 정보자원 영역, 정보서비스 영역의 경우 평균 이하로 나타났고, 환산점수는 50점을 넘지



〈그림 6〉 도서관 설립주체에 따른 영역별 평가점수 분포도

못했다. 특히 도서관 경영 영역과 정보자원 영역이 타 기관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경영 측면에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

성, 도서관 자체평가 실시 등 도서관 혁신활동이 미흡하고, 도서관 실무를 위한 업무편람이 부재한 기관이 많았다. 정보자원 측면에서는 이용

자 1인당 전자자료 수가 감소한 기관이 많았고, E-book, E-journal, 상용서지 DB 등 전자정보 자원의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도서관 이용이 인쇄자료에서 전자자료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전자자원 개발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업체 및 민간단체는 5개 영역에서 모두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서비스 영역의 환산점수는 30점 이하로 가장 취약하였고, 정보자원 영역과 인적자원 영역에서도 40점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

병원 및 기타기관은 인적자원 영역과 정보서비스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정보자원 영역의 평가가 매우 낮았다. 병원 및 기타기관의 경우 도서관 평가의 공모기관이 2개 기관으로 이를 통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상세분석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전문도서관 운영평가 38개 세부지표의 도서관 설립주체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분포는 <표 9>와 같다. 기타 공공기관이 16개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

과 병원 및 기타기관이 11개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기업체 및 민간단체가 11개 지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9개 지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체로 최고점과 최저점의 분포는 전체 평가점수의 순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6개 지표에서 최저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지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3위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8개 지표를 5개 영역으로 합산한 후 영역별 점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표 10>과 같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도서관 평가지표의 영역별 상관성은 유의수준 0.01에서 상관계수가 모두 0.4 이상으로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³⁾ 특히 도서관 경영 영역과 타 영역 간에는 0.6 이상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도서관 중장기계획, 도서관의 위상, 업무의 표준화, 도서관 마케팅 등의 도서관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여부가 도서관의 인력, 시설, 정보자원, 서비스 품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9>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 38개 세부지표의 평가 최고점과 최저점 분포

구 분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출연연 등)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기업체 및 민간단체	병원 및 기타
세부지표 최고점수	11	0	16	2	3	11
세부지표 최저점수	6	6	1	9	11	6
평가점수 순위	2	3	1	5	6	4

(동일점수에 의한 중복순위 포함)

3) 상관관계 계수의 해석(Rea & Parker 2005)

- 0.0~0.1 거의 관계없음
- 0.1~0.2 약한 양의 상관관계
- 0.2~0.4 보통의 양의 상관관계
- 0.4~0.6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
- 0.6~0.8 강한 양의 관계
- 0.8~1.0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

〈표 10〉 전문도서관 평가영역별 상관성

영역	도서관 경영 영역	인적자원 영역	시설환경 영역	정보자원 영역	정보서비스 영역
도서관 경영 영역					
인적자원 영역	.602**				
시설환경 영역	.714**	.552**			
정보자원 영역	.699**	.439**	.613**		
정보서비스 영역	.732**	.452**	.584**	.662**	

** p < .01

〈표 11〉 도서관 주요통계지표와 평가영역간 상관분석

구분	도서관 경영 영역	인적자원 영역	시설환경 영역	정보자원 영역	정보서비스 영역	전체
사서 직원 수	.663**	.451**	.493**	.604**	.624**	.698**
도서관 직원 수	.555**	.393**	.383**	.516**	.503**	.576**
봉사대상자 수	-.017	-.147	.081	-.109	.036	-.033
자료구입예산	.393**	.253	.284	.452**	.470**	.467**

** p < .01

전문도서관 평가 시 제출한 봉사대상자 수, 도서관 직원 수, 사서 직원 수, 자료구입예산의 정량적 통계지표에 대해 〈표 11〉와 같이 영역별 평가결과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봉사대상자 수는 기관의 규모를 유추할 수 있는 변수가 되고, 자료구입예산은 도서관의 예산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변수가 된다. 사서 직원 수는 모든 평가영역에 대해 대체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도서관 경영과 정보자원 영역의 평가점수와 상관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서관 내 사서 직원 수가 많을수록 영역별 평가점수도 대체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 직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서직원 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평가영역과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단, 사서직원 수가 도서관 직원 수에 비해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대상자 수는 모든 평가영역에 대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었다. 도서관이 속해 있는 조직의 규모는 도서관 평가점수와 무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료구입예산은 도서관 경영, 정보자원, 정보서비스 영역과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료구입예산은 정보서비스 및 정보자원과 대체로 상관성이 높았다. 자료구입예산이 많을수록 도서관의 정보자원과 정보서비스 측면의 평가점수도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론

2012년도 평가에 참여한 전체 63개의 전문도서관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9개 세부지표의 종합 평가점수는 100점 기

준으로 보면 51.8점으로 나타났다.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시설환경 영역의 100점 환산점수가 77.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적자원 영역(53.5점), 도서관 경영 영역(51.0점)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자원과 정보서비스 영역은 각각 49.3점, 45.4점으로 50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시설환경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지표별로 분석하면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표는 시설환경 영역의 '이용자 편의시설'(96.7점)이었고, 가장 낮은 지표는 인적자원 영역의 '도서관 직원의 장기 교육훈련 참여실적'(13.0점)으로 나타났다.

전문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기타 공공기관이 16개 지표에서 최고점을 받고 1개 지표에서 최저점을 받아 100점 환산점수가 58.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이 11개 지표에서 최고점을 받고 6개 지표에서 최저점을 받아 55.2점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기업체 및 민간단체는 3개 지표에서 최고점을 받고 11개 지표에서 최저점을 받아 전체 평가점수가 36.7점으로 가장 낮았다.

평가영역과 도서관의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가영역 간 분석에서는 도서관 경영 영역이 타 영역과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도서관 주요 통계지표와 평가영역간의 상관성은 사서직원 수가 세부평가영역과 대체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기관의 규모를 나타내는 봉사대상자 수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었다.

이 연구는 2012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 참여한 전체 63개 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

관 운영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설립주체별로 도서관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것이다. 국내 전문도서관은 주로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병원, 기업체, 언론기관 등 모기관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분석결과는 도서관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도출된 영역별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운영 측면에서 도서관의 혁신활동과 기관 내 위상강화가 필요하다. 이용자의 서비스 요구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도서관이 전문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자체평가와 운영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소속기관 내 도서관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도서관 서비스가 모기관의 업무효율성과 성과향상에 밀접한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개선노력과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모기관의 도서관 인식개선으로 이어지고, 도서관 부서의 독립성과 추가적인 예산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인적자원 측면에서 도서관 직원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모기관 이용자는 소속기관의 비전과 주요사업 및 경영목표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한정된 집단이므로, 도서관 직원은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나 직무습관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 직원은 맞춤형 주제정보서비스, 정보분석 서비스, 과제별 도서관 연계 협력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직무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정보서비스 측면에서 이용자 교육과 주제전문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지자체 및 교육청과 기업체 및 민간단체 소속 전문도서관의 경우 이용자 교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자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도서관 서비스의 소개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이용자의 정보수요 및 활용을 심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리터러시 활동이 필요하다. 연구 및 업무지원을 위한 주제를 발굴하고, 정보수집에서부터 가공, 평가,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습득할 수 있는 정보활용교육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소속 전문도서관의 경우 정보자원 구입 예산의 한계로 도서관 연속간행물 확보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예산이 작은 기관은 설립주체별로 전자자원 구입을 위한 별도의 컨소시엄을 운영하거나, 기관간 정보 공동 활용 체계구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분석된 전문도서관 평가의 몇 가지 한계점과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평가방식을 공모 참여에서 모든 전문도서관이 참여하는 전수 참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공모제 방식에서는 연도별로 참여하는 전문도서관이 상이하

고, 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전문도서관 수가 적어 전문도서관 운영에 대한 시계열적인 분석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도서관의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우선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전문도서관부터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도서관 평가 연구는 운영실적에 대한 실태분석과 이용자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도서관 이용자의 정성적 만족도를 계량화하여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정보제공기관과 정보수혜자 측면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관규모, 도서관 예산, 인력, 면적 등의 정량적인 수치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도서관 평가결과에 대한 관계성과 영향력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정보생산이 폭증하는 가운데 전문도서관의 방향과 미래를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도서관 평가는 도서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수단이자 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를 위해 전문도서관의 평가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후속연구를 통해 전문도서관의 평가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상준, 황재영, 박계숙, 최호남. 2008. 전문도서관 운영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정보관리연구』, 39(4): 97-120.
- [2] 김윤실. 2008. 전문도서관의 서비스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9(3): 147-162.
- [3] 김정희, 김태수. 2009. 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한 전문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3): 69-87.
- [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2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5] 박희숙, 정동열. 2008. 전문도서관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3): 11-43.
- [6] 정혜경. 2008. 전문도서관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분석모형 개발. 『정보관리학회지』, 22(3): 147-162.
- [7] 최재황, 차성중. 2012. 전국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173-200.
- [8] 한국도서관협회, 문화체육관광부. 2012. 『한국 도서관 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9] 한중엽. 2012. 학술출판, 전문도서관의 힘을 키운다. 『톡톡튀는 도서관 정보서비스』. 서울: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 [10] Rea, L. M., & Parker, R. A. 2005. *Designing & Conducting Survey Research: A Comprehensive Guide* (3rd Edition). CA: Jossey-Bas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Sang-Jun, Hwang, Jae-Young, Park, Kay-Sook, & Choi, Ho-Nam. 2008.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Research Libraries."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9(4): 97-120.
- [2] Kim, Yun-Sil. 2008. "A Study on Evaluating Service Quality in Speci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9(3): 147-162.
- [3] Kim, Junghee, & Kim, Tae-Soo. 2009. "A Study on Special Library's User Satisfaction with the Library Service Quality Evalu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3): 69-87.
- [4]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2012 Evaluation Report of Korean Libraries*

Management.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5] Park, Hee-Sook, & Jeong, Dong-Youl. 2008. "A Study on the Developing of Evaluation Indicators of Specia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3): 11-43.
- [6] Chung, Hye-Kyung. 2008. "A Study on Economic Valuation Model of Speci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3): 147-162.
- [7] Choi, Jae Hwang, & Cha, Sung-Jong. 2012. "Analysis of 2011 Korean Public Libraries' Management Evalu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43(1): 173-200.
- [8] Korean Library Association,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Korea Library Year Book*.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9] Han, Jong yup. 2012. "Scholarly Publication: new blue ocean of the special library." in *Living library service*. Seoul: Korea Special Library Association.

